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복지재단

지역복지본부장	강일신	724-0801
공유복지팀장	심영훈	724-0852
담 당 자	신민정	724-0830
관련홈페이지 (메뉴)	http://www.welfare.seoul.kr/ business/private	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독거노인, 다문화가정 등에 '희망미(米)' 20톤 지원

- GKL(그랜드코리아레저) 노사, 서울시복지재단 통해 3년째 ‘희망미’ 기부
- 중구, 서대문, 구로구, 강남구 등의 취약계층 2000가구에 쌀 배달하기로
- 9일 오후 1시30분,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GKL 임직원 참석 전달식

- 서울시복지재단은 GKL(그랜드코리아레저) 임직원들과 함께 독거어르신가정과 다문화가정, 소년소녀가장가정 등 서울시내 취약계층 2000가구에 ‘희망미(米)’ 20톤(10kg 2000포, 5000만원)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(화) 밝혔다.
- 희망미 지원은 ①GKL사회공헌재단이 서울시복지재단에 5000만원을 지정기탁하면, ②재단이 신당종합사회복지관(중구), 화원종합사회복지관(구로구), 능인종합사회복지관(강남구),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(서대문구) 등 복지관 4곳에 사업비를 배분하고, ③복지관이 개별적으로 쌀을 500포씩 구매해서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
- 해당 복지관은 GKL사회공헌재단에서 지정한 4개 자치구의 복지관 중에서 서울시복지재단과 GKL 측이 협의해서 선정했다.

- 한편, 서울시복지재단과 GKL 노사는 9일(화) 오후 1시30분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(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8길 57)에서 임병수 GKL 대표이사, 전진수 GKL 노동조합위원장,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.
- 희망미 기부는 GKL노동조합 창립기념일(올해 9회)을 맞아 노사화합 차원에서 진행하는 행사로, GKL 노사는 3년째 서울시복지재단에 5000만원을 지정기탁하는 방식으로 희망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.
 - GKL 노사는 이번 기부를 포함해서 3년 동안 희망미 54톤(1억5000만원)을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기부했다.
- 임병수 GKL 대표이사는 “GKL 노사는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난해 GKL사회공헌재단을 만들었고, 올해부터 사회공헌재단 이름으로 희망미 기부가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”면서 “노사화합의 상징처럼 된 희망미 기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-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“서울시복지재단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이 여전히 많다”면서 “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여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※ 붙임 서울시복지재단-GKL 노사 ‘희망미’ 지원 개요 전달식 일정

I '희망미' 지원 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6월
- 사업대상 : 서울시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2,000여명
-다문화가정, 소년소녀가장가정, 독거어르신가정 등
- 사업지원 : GKL사회공헌재단
- 사업내용 : 쌀 20톤 지원 (10kg 2,000포)
- 지원방법
 - GKL사회공헌재단에서 5천만원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지정기탁
 - 재단에서 4개 자치구 소재 4개 복지관으로 사업비 배분
 - 능인종합사회복지관(강남구) · 화원종합사회복지관(구로구 소재),
신당종합사회복지관(중구소재),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(서대문구 소재)
 - ※ GKL사회공헌재단에서 지정한 4개 자치구 소재 복지관 중 GKL측과 협의 후 선정
 - 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쌀 구매 후 대상자에게 전달

II '희망미' 전달식

- 일 시: 2015. 6. 9(화), 13:30 ~ 13:50
- 장 소: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
(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8길 57)
- 참석자: 임병수 GKL 대표이사 및 전진수 노조위원장 외 임직원 80명,
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외 재단 관계자,
탁우상 서울시립서대문노인복지관 관장 외 복지관 관계자